

■ 괴운(槐雲) 칼럼



소처럼 성실하고 우직한 한해를 보내자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2021년 신축(申丑)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며칠 후면 음력설(舊正)을 맞이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신축년은 이 음력설로부터 정말 시작되는 셈이다. 역술가들은 신축년이 간지로 38번째 해로 '흰 소의 해'로 절기상으로는 12월 새벽과 같은 어둠과 꿈꿨던 땅의 의미이며, 한반도에 음(陰)과 습(濕)의 기운이 강하여 환란과 자연재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농경시대 살아오면서 소의 지혜로움과 고마움을 갖고 살아왔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자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단순한 가축의 의미가 아닌 식구처럼 여겨졌다. 농사를 근본으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은 묵묵히 일하는 근면 성실한 소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부를 축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는 농가의 큰 재산으로 목돈이 있어야만 사고 팔 수 있으므로 '풍요나 부'로 상징하였는데, 농가의 재산목록 1호에 소가 등극할 정도였다. 그리고 '소를 팔아 자식들을 키웠다'라는 말이 있는데, 소를 팔아서 힘들을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고 하여 '상아탑' 아닌 '우골탑'이라는 말도 한때 유행했었다. 이 우골탑으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속담에 소는 먼 길도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여 우보천리(牛步千里)라 하였다. 빠르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목표를 향해가서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곧 엔딩전략(Ending Strategy)의 표상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리석거나 고집이 세다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 '황소고집' 또는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라는 속담도 있다.

그러나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소를 덕(德)이 많이 가진 동물로 여겨왔다. 차체에 소의 8덕을 알아보자. 첫째는 서두르지 않고 항상 꾸준하다. 둘째는 환경과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셋째는 음식을 먹으면서 되새김으로 피드백을 한다. 넷째는 성품이 순하고 자애롭다. 다섯째로 인간에게 재물을 안겨주고 있다. 여섯째로 불행과 병과 귀신을 막아준다. 일곱째로 초연하고 유연적

하다. 여덟 번째 조물자의 관조를 계시한다. 그리고 소는 흔히 말하는 여러 키워드(key word)를 가지고 있다. (1) 순종(順從), (2) 성실(誠實), (3) 근면(勤勉), (4) 인내(忍耐), (5) 겸손(謙遜), (6) 우애(友愛), (7) 사랑(愛), (8) 협력(協力), (9) 희생(犧牲), (10) 우직(愚直), (11) 헌신(獻身) 등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우리와 친근한 소가 깜짝 정치무대의 중심에 선적도 있었다. 1998년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소고기 수입을 놓고 벌어진 '광우병' 소동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다. 요즘 세계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도 소고기가 그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래저래 우리는 소와 소고기는 우리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비록 신축년 올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싸워야 하고, 대외적 환경도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 출범과 북한 정세 등이 불안정하고, 대내적으로도 경제 불황과 함께 4월 서울, 부산 시장 선거와 2022년 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아무튼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우리는 아무리 국제 정세와 국내사회가 불안하더라도 '천천히 걸어도 황소 걸음'이라는 속담처럼 '소의 8덕'을 거울삼아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참고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며칠 전 친구가 보내온 신축년 100신문 신춘문에 당선작 시 〈신축년 열 마리 소〉인 '새해엔 건강하소, 가족과 친근하소, 자라는 내비두소, 남에겐 관대하소, 나라 거정 달하소, 마누라 이길라마소, 소처럼 우직하소, 역병을 물리치소, 생각 다르면 내가 양보하소, 부디 살아남으소'를 보며, 올해는 소의 덕담인 '웃소(Smile Cow)'처럼 안동권문(安東權門)의 모든 가정에 항상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새해, 5덕을 더 즐기세요!



권희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1. 복(福, Bless)이 뭐지? 새해 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이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 받으라는 말이 "잘 지내세요"라는 뜻 정도로 알고 의례적으로 듣고 말하면서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그 뜻이 궁금해졌다.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 기본미리로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복과 오묘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며, 통상 의미로는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해당되는 뜻을 많이 가지므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복에는 능력이나 노력보다 더 많은 결실이나 혜택을 가지는 의미가 담겨있다. 실버에 접어들수록 복 받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다.

복의 뜻을 읽으며, 그 중 '오복'이라는 말이 궁금해졌다. '오복하다'의 기본미리는 '적은 수의 사람이 흥분하며 서로 가깝고 정다운'이고, 통상으로 '살림 따위가 실속있고 넉넉한'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오복함'은 주변을 넓게 돌보지 않는 편한 인간 관계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느꼈다.

2. 인사말은 따뜻한 마음의 교류이어야

새해가 되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뜻은 제대로 담은 인사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인사말은 염원을 담고 있고, 말은 씨가 된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하던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 그 '복'은 '부담이 없게 노력 이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라는 무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대신으로 할 수 있는 잠깐 인사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사말은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거나 만드는 따스함이어야, 이로 인한 인간관계의 활력이 생성되고 유지된다. 인사말이 따뜻해지면, 그 인사말이 에너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생각과 행동의 에너지가 된다. 인사말에 의미를 제대로 담게 되면, 그 말이 담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그 커지는 에너지가 인간관계를 키운다. 그 말투는 정답고 푸근하거나 포근해야 한다. 그래야 더 따뜻해진다.

3. 5복을 누리세요!

복은 기쁨이나 즐거운 마음이다. 어떤 대상 없이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거품처럼 쉽게 사라진다. 무심하게 건네는 '복 인사말'은 쉽게 마음에서 시들어진다. 그러므로 '복 인사말'이 마음에서 오래오래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그 복에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

'복 받으세요'에서 '받다'의 뜻은 다양한데, '받아 가지다'라는 수동적 의미이지만,

'누리다'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즐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의미의 '받다' 보다는 능동적 의미의 '누리다'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사 받는 분에게 더 큰 에너지를 드리고 그 에너지가 그의 즐거움을 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리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당연히 인사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함께 들으므로 그 자신이 더 따뜻해진다. 그러므로 따뜻한 인사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활력의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크다.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길 것인가? 중국의 유교경전 서경(書經)에는 장수, 건강, 재산, 덕행, 고통 없는 죽음의 5복을 기록했다. 현대인들은 건강, 재산, 배우자, 일거리, 친구의 5복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길 원하실까?

4. 5덕을 더 즐기세요!

마음의 내면에 알맹이가 삭아드는 느낌이니, 마음이 차가워진다. 그 알맹이가 덕(德)으로 채워져 있을 때, 마음은 따뜻해진다. 종교인에게 그 알맹이는 '신의 말씀'일 것이다. 새해에는 이 알맹이를 좀 더 알차게 해서 좀 더 따뜻해져야겠다.

실질에는 전통적으로 덕담을 나누니, 덕에 관한 정리가 잘되어 있는 맹자의 4단 4덕과 동중서의 5상(五常)을 끄집어 내본다. 이 마음씨에서 나오는 핵심을 4덕으로 정리하였다. 단(端)은 실마리라는 뜻이다.

즉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측은지심, 惻隱之心)에서 인(仁), 부끄러워하는 마음(수오지심, 羞惡之心)에서 의(義), 공경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예(禮),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시비지심, 是非之心)에서 지(智)가 형성된다.

오상은 중국의 동중서가 맹자의 4덕론에 신(信)을 포함시켜 인간이 항상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기본덕목을 설정하여 유래되었다. 신은 변함없이 지속가능한 신뢰, 신용의 마음이다. 그래서 5상은 5덕으로 인·의·예·지·신을 말하며, 이는 오행철학으로 연결된다.

새해에는 단순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키워 즐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말을 정답게 주고받으며,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좀 더 넓게 따뜻해지고 활력있게 되기를 도모해 보자. 따뜻함은 귀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건강한 에너지이다.

존친 여러분, 새해에는 5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5덕을 더 즐기세요!



■ 이달의 시 탄생 / 권혜창

명자꽃 꽃망울 속에는
겹겹히 접힌 응달의 기억이 있을지 몰라
가두어 놓은 울음도 있을지 몰라

단단한 인내가 봄을 부르고
이윽고 꽃 피어날 때
접히고 감췄던 것들이 화기와 빛깔이 되리니

나누는 괴롭다 말하지 않네
피어서 눈부신 사랑이 될 뿐!

1960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학예술 전공. 1994년 《월간문학》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눈 속의 예쁜', 신앙고백서 '로맨스 아래서', 등

이달의 책

금조사연구 金朝史研究

/ 윤명수



函首 初從高麗來.....)라 하여 금국의 시조가 고려에서 온 함보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서 금사(金史)는 금국(金國)의 역사이고 금국의 시조는 신라왕족의 후예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금국의 역사는 한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사의 방계역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국은 김씨(金氏)의 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저자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이 책자가 우리 역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편집국장 권혜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1차)

- ◆ 일 시 : 2021년 2월 21일(일) 오전 10시(시간엄수)
- ◆ 산 행 지 : 창포원 둘레길
- ◆ 집결장소 :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 ◆ 준 비 물 : 간식, 개인 필요 장비 등(단체로 식당 출입이 불가하므로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복님께서 교역 상당의 컵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회 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 무 권순휘 : 010-3797-1874

2021년 2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월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개최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2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2021년 1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 납부기간 : 12. 28. ~ 1. 27. ■ 총 납부자 23명/지사 4곳

총 2,550,000원

단위:원

권영일(대구)	권영각(경주)	권오진(안동 무릉리)	권중봉(거제)	지사지국 납부지역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항(대구)	권영태(경기고양)	권용수(영주)	권태환(양주)	대전참여공중중
30,000	30,000	30,000	30,000	500,000
권동찬(경주)	권영범(산청)	권윤호(대구)	권택훈(경주)	마포종친회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0
권득호(용인)	권영식(서울성북)	권재수(진주)	권혁원(경기수원)	안동종친회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0
권병윤(영덕)	권영환(세종)	권재옥(경기화성)	권현(대구 대명동)	충주종친회(권오협 회장)
30,000	30,000	30,000	30,000	860,000
권식(김포)	권오수(구미)	권재용(포항)		
30,000	30,000	30,000		